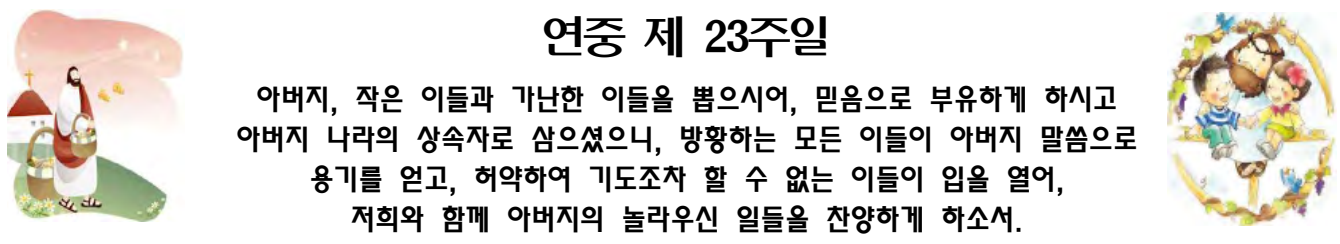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3주일

아버지,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뵙으시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허약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입을 열어,
저희와 함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신임 본당 사제
- 캔사스 한인 카톨릭 공동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8/30) 신임 신부님의 환영미사와 부임식에 함께 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에 힘입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권고합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까지도 바치는 열정입니다.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묵상하며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본받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간 전례

- 9/ 7(화) :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 9/12(토): 동정 마리아 성명

맨하턴 공동체 미사

이번달 맨하턴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추석 합동위령미사

9월 27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교무금에 대하여

저희 캔사스 한인 공동체는 여러 교우님들의 교무금과 도네이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25가정이 교무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보다 더 크신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8	211	161/175	28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호진 안토니오
차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김명은 안젤라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8/30	105명	518불	500불
이번주 교무금 내주신 분들의 이름은 다음주에 공고하겠습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 오늘, 신앙 공동체는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은총으로 부유하게 해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도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하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은총의 꽃비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반병어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임을 드러내십니다. 불쌍한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은총의 꽃비를 내립니다. 단힌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라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4-7

<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잘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

화 답 송 :



내 영 혼 아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알 렬 루 야 - -

-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께서서는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
- 주님께서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서는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서서는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주님께서서는 나그네를 지켜 주시도다. ◎
- 주님께서서는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악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

제 2 독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5

<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7

<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잘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

세 마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오늘 복음 역시 기적에 대해 간단하게 전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와서 낫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꽤 자주 예수님께서서는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시지만 오늘은 아무런 말 없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 이야기에서 복음서들이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적 이야기들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비교적 자세한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 뒤에 “에파타”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병이 낫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아마도 군중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병자가 낫게 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적 이야기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도 가끔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성모님과 관련된 기적들이 주를 이룹니다. 어떤 이들은 영광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서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적은 그저 특이한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이사야서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리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기적 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야고보서의 권고는 어쩌면 시대와 관련이 없는, 초기 공동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찡끔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이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 대단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표현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예를 통한 것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인간적으로 누구를 더 친절하게 대할지 굳이 묻지 않아도 답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은 가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은 가끔 옳은 것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고, 편한 것이 좋고, 보기 좋은 것이 좋지만, 믿음은 가끔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믿는 이들에게 세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꽤 자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로 어느 정도 그것을 합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긴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춧돌

비운의 사제 아히멜렉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도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도 망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놓이던 지방에 있는 사제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모습에 당황하면서 “아니 어떻게 호위병도 없이 혼자 오시는 것이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21,1-4

다윗은 왕명을 띠고 길을 떠났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임무가 막중하여 사울 왕은 침묵을 지키라고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어떤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아히멜렉은 의심이 없지 않았지만 다윗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윗은 제단에 바쳐진 거룩한 빵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허기를 채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무엇을 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21,5-10

다윗은 아히멜렉이 준 무기를 갖고 필리스티아로 가서 망명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미친 척하여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

엑을 통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벌벌 떨며 다윗이 쫓기고 있는 것을 몰랐으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21,6-23

오늘날에도 자신의 선한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화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따뜻하게 도와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마음이 착하고 어린 사람들은 다른 이의 곤궁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너무 쉽게 다윗의 말을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곧잘 다른 사람을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